

새로운 천년을 설계하자



권상원
국토개발(조경)기술사
(주)동양기술개발공사 전무이사

새로운 세기가 목전에 다가왔다.

6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새해는 새로운 천년(New. Millennium)을 여는 첫해이기도 하다.

격동의 20세기를 보내며 미지의 21세기를 준비하기가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벅차오른다.

우리에게는 미래 천년을 이어갈 후손들에게 가치있는 유산을 남겨줄 시대적 소명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세기의 끝 1999년을 호호하는 우리건설인들의 어깨는 더욱무겁다.

건설인의 손끝에서 빚어지는 토목, 건축 구조물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을 뛰어넘어 찬란한 문화유산으로 영원한 생명력을 갖는가 하면, 또 다른 경우에는 부실이라는 오명을 남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민족은 고래로 부른 자원이 빈약한 국토환경을 극복해왔다.

고대 농경시대에는 이미 대형 저수지를 축조했고, 산악이 절대적인 자연을 활용해 전세계적으로 우수한 목조, 석조 구조물들을 창출해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팔만대장경, 장경각이 그렇고, 수원 화성이 또한 그렇다. 척박한 자연환경을 이처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근원은 총명한 두뇌에서 비롯된 과학성과 매운 손끝에서 우러나온 기술력, 그리고 민족특유의 장인정신이었다.

20세기 중반이후 건설산업의 역할은 눈부셨다. 6·25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면서 지구촌을 감동시킨 민족적 저력이 건설업을 통해 발현됐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1960년대 이후 고도 압축성장의 배경에는 분명 건설인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스며 있다.

많은 건설기능인들이 희생됐던 경부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경우 4년의 예정공기를 뛰어넘어 2년 5개월만에 완공했는가 하면 1km당 공사비 1억원이라는 세계 건설사상초유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는 당시 열악했던 정부재정에 큰 도움을 줬음은 물론이고, 전국민적으로 우리도 하면 된다는 긍지를 일깨워 주었다.

20세기 세계건설사의 한 장을 차지하는 구조물들을 만들어 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산업항, 리비아의 대수로, 싱가포르의 레플즈시터, 말레이시아 KLCC쌍둥이 빌딩 등의 시공으로 한국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이미 입증됐고, 지구촌 어느곳을 가더라도, 우리의 땀과 기술로 만들어진 수많은 결정체들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우리경제의 규모가 개발연대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커졌

음에도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투자규모에서 GDP대비 20%로 여전히 높다. 또한 IMF 사태로 인한 대량실업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종사자는 현재 150만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국민경제에 절대적 기여를 하고 있는 건설산업이 정책차원에서 행여 소홀이 취급된다면 국가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그동안의 크고 작은 사고들로 인해 건설업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건설인 스스로도 자존심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더욱이 IMF 이후 건설산업이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업역별, 규모

별 경향간 다소의 갈등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세기말의 이러한 시련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으며 새로운 세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수도 있다.

우리의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건설산업의 미래 지향적 비전의 확립이다. 지난 한세기의 영욕과 공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 기간 산업으로서의 건설업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는 건설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므로서 21세기 경제발전과 민족의 생존전략을 모

색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 궤를 같이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개혁 의지와 실천, 업계의 철저한 자기반성 그리고 국민들의 애정어린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건설업계가 단결하고 정부가 밀어주며, 국민들이 이끌어 준다면 그래서 이러한 3박자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건설산업은 21세기 국가경제의 “효자”산업이자 국제적 이미지 개선의 첨병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제 모든 건설인들의 이러한 산업적 미래 비전을 구체화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이다. 지금은 분명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의 건설산업을 설계해야 할 시기임이 분명하다. **조경수**

